

48

‘리빙랩’ 공모사업 들여다보기

‘리빙랩’ 공모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권영민

최수미 정책기획실 연구원

ican0628@makehope.org

No. 48

2019. 11. 28.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
희망이슈

모든 시민이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요약 '리빙랩' 공모사업
들여다보기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정부도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리빙랩은 아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개념확립을 위해 폭넓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공모사업은 행정서류와 회계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래서 공모사업 규정과 서류작성에 능통한 기관이나 주체의 참여비율이 높다. 공모사업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회성 사업지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협소하고 단발성인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쉽다. 예산사용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리빙랩 공모사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시행착오

를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와 기존의 사업지원 방식인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 해결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한 것도 현 상황의 한계로 꼽힌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소 2개년 계획으로 '문제정의-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진행되는 공모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다양한 주체그룹의 연대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체험형 훈련 학습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풀(pool) 구축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며, 오픈웍스(open-works) 방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공모 진행 전 △사전 학습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수정·보완 기회 제공 △촉진자 또는 참여자 간 상호토론 보장 △리빙랩 진행 과정 점진 △중간지원의 기능 배분 △수평적 파트너 협력관계 모델 창출 등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키워드

리빙랩, 공모사업, 사회문제해결, 사회혁신, 시민참여

‘리빙랩’ 관련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또한, 현 정부는 2019년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서 ‘사회적가치 중심 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진역점 과제로 ‘주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 활성화’를 내세우며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명시하고 있다.¹

정부 부처에서는 리빙랩 안내서 발간을 통해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종 공모형 지원

사업 등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정책 구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표1 참조).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주요 EU 국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리빙랩을 도입하여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ENoLL)’에서는 2017년 400여 개 리빙랩을 운영했다.

‘리빙랩’ 관련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리빙랩은 시행 초기 단계이고, 개념의 확립을 위해 폭넓은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따라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에서 국민·시민·주민을 대상으로 ‘리빙랩’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그것도 사업 기간 내 추진해야만 하는 경직된 체계와 정산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공모’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다. 공모방식을 뛰어넘는 프로세스 설계는 정말 불가능한가. 불가피하다면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본 글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리빙랩 공모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리빙랩 공모사업의 한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향후 리빙랩 공모사업의 보완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2019년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 과제 4-2(역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

‘리빙랩’ 개념 및 공모사업 현황

리빙랩(Living Lab)은 “‘우리 마을 실험실’,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특정 지역의 생활공간을 설정하고 공공, 민간, 시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방식”으로 해석된다(송위진, 2012; 성지은·송위진·박인용, 2013; 2014; 성지은·박인용, 2016). 최근에는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 대학,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리빙랩’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표1 참조). 또 이들 영역에서는 ‘플랫폼’² 방식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로 확장하고 있다.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자체	서울시	2019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경상남도	2019년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광양시	2019 광양시 스마트 시민공감 리빙랩 공모전
	성동구	2019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광산구	무한상상 리빙랩_광산구 생활문제 공모전
	금천구	금천1번가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공기업 /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실증사업 공모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리빙랩 ‘수상한 시민실험’ 참여 공모

2. 플랫폼 방식의 사업 중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혁신 플랫폼’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충북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행정, 공기업·공공기관, 시민사회,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표 1.
2019년도 리빙랩 관련
공모사업 현황

포털사이트에서 ‘리빙랩’, ‘공모’, ‘사회혁신’, ‘실험’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

공기업 / 공공기관	제주도개발공사	제5회 JPDC 창의사업 공모전 “내가 Green 제주 소셜리빙랩”
	서울산업진흥원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실증 사업 공모
대학	강남대학교	캠퍼스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전
	전남대학교	ICT를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리빙랩 아이디어공모전
	전주대학교	2019 소셜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전
	전주기전대학	지역상생을 위한 기전 소셜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민간	한국교통연구원 등	자율협력주행 및 C-ITS 리빙랩 공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
	대구테크노파크 등	2019년 「대구X청년 소셜리빙랩」 참여청년 모집
	전주사회혁신센터	2019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춘천사회혁신센터	2019년 소셜 리빙랩 C(춘천) 프로젝트 모집
		2019년 춘천 소셜 리빙랩 T_technology 모집 공고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19년 대전광역시 마을리빙랩 지원사업
	대구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19 더나은 대구를 위한 실험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2019 사회혁신실험실@부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2019 충남사회혁신 실험실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소셜리빙랩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 농촌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민참여형 IoT리빙랩 실증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영등포문화재단	2019 문화생산 도시리빙랩

광역단위 지자체가 직접 공모·실행하는 방식으로 리빙랩을 운영한 경상남도는 올해 전체 1억 8천만여 원의 사업비를 지역사회에 배분했다. 2019년 10월 31일로 사업이 종료됐다. 경상남도는 올해 사회혁신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의지를 갖고 사회혁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이다. 경상남도는 공모를 시작해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에 사업설명회를 배치하며 다소 낯설고 생소한 ‘리빙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리빙랩의 이해’에 관한 강의와 실제 제안서 작성 실습 워크숍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 대학,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리빙랩’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표 2.
2019년도 유형별
공모사업 사례

	경상남도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민해결2018
운영기간	• 5월~10월 (6개월)	• 6월~10월 (5개월)	• 8월~11월(100일)
사업비	• 기획 : 2천만원 (5건) • 자율 : 1천만원 (6건)	• 2천만원 (1건)	• 리빙랩 : 3천~5천만원 (20건) • 마중물 : 2백~5백만원 (9건)
운영	• 공모(1월) • 사업설명회(2월) • 심사(3,4월) • 최종팀선발(4월) • 실행(5월~10월) * 사업설명회 * 월 1회 전문가컨설팅 배치	• 공모(3월) • 심사(5월) • 사업설명회(5월) • 전문가컨설팅(5월) • 최종팀선발(5월) • 실행(6월~10월) * 전문가컨설팅 * 사업기간 중 전문가 자문 매칭	• 연구자모집 (6,7월) • 상상테이블 운영(7월) • 컨설팅데이(7월) • 아이디어제안서 접수(7월) • 심사(8월) • 리빙랩 실행단구성(8월) • 실행(8월~11월) * 상상테이블 * 국민활동가 배치

3. 경상남도,
2019년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 공고

4. K-water,
리빙랩
「수상한 시민실험」
추진계획

5.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국민해결2018’
결과보고서

이로써 문제 정의의 의미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식이라는 개념을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심사도 1차 서류심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발표자 모두가 상대방의 발표를 경청한 후 질문하고 채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공감과 학습이 함께 이뤄진 방식이다. 또 선정된 의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배분한 뒤 결과보고서만 받는 게 아니라, 월 1회 전문가컨설팅을 배치해 함께 토론하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의미 있다.³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1개 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리빙랩을 운영했다. 5개 팀을 서류심사로 선정한 뒤 1개 팀을 최종선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선에 오른 5개 팀이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초기 제안서를 수정·보완하고, 숙성시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5개 팀과 설명회를 개최해 ‘리빙랩의 이해’, ‘제안서 작성 코칭’의 주제로 참가팀과 교감을 나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수행팀이 실험이라는 낯선 개념에 위축되지 않도록 실험하는 동안 전문가를 배치해 방향과 내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⁴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국민해결2018’(이하 국민해결 2018)은 희망제작소가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수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실제 사업이 2018년 6월부터 시작돼 전국 범위의 사업 규모로 본다면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됐다. 리빙랩을 실행하기까지 2.5개월은 의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고(국민연구자 모집),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는 문제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토론하는 과정(상상테이블)을 배치했다. 제안서를 쓰기 전 문제를 정의하기 어려운 국민연구자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컨설팅데이)하고, 마지막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제안자를 중심으로 실행단이 구성돼 100일간의 실험으로 이뤄졌다.⁵

III.

‘리빙랩’ 공모형 지원사업의 한계

6. 서울연구원(2018),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2019년도 리빙랩 공모사업 현황(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영역에서 ‘리빙랩’ 관련 공모사업이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리빙랩’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공모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충분한 이해 없이 참여하는 시민들로서는 ‘리빙랩’ 공모사업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시민사회에서 가장 익숙한 공모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생활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과제를 공모하는 사업이 늘어났다. 공모사업의 확장은 실제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이러한 사업에 반복해 참여할수록 훈련된 활동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⁶

01. ———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

이러한 성과에도 공모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은 쉽게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의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서류와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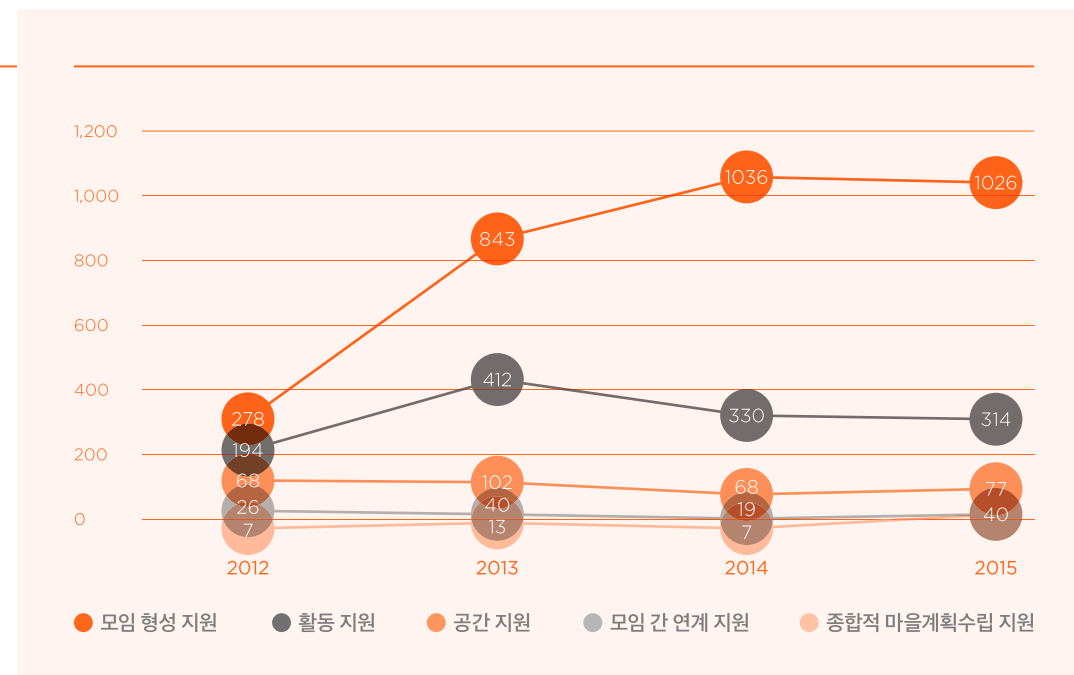


그림 1.
단계별 마을사업
신청 건수(연도별)

출처: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7.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서류작성에 능통한 참여자의 경우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공모사업 경험이 부족한 시니어, 경력단절 여성, 청년·청소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장벽은 높아진다.

한 연구보고서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모사업의 편익을 일부만 보고 있는가’, ‘공모사업 규정에 밝은 주체가 좀 더 편익을 보는 구조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영리단체 소속답변자들은 90%와 100%의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권향원·윤영근·박중훈, 2018). 과거보다 공모사업을 가깝게 접할 수 있지만(그림1 참조), 정책과 공모사업에 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은 아니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다.⁷

02. ——— 난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일회성 지원

일회성 사업지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지역사회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난제들이 많다. 동네 어디서나 있을법한 주차문제, 불법 쓰레기

‘리빙랩’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공모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충분한 이해 없이
참여하는 시민들로서는 ‘리빙랩’ 공모사업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문제 등은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다양하고 흥미로운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난제들을 과연 1년 내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 기간 내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단순하고 일회적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막상 해보고 싶은 일은 따로 있지만, 단발성으로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만 많아지는 형국이다. 따라서 공모사업 의제의 참신성을 찾기 더욱 어렵다. 교육, 캠페인, 봉사, 토론회, 축제, 나눔, 출판 등 예측 가능한 분야의 유사 사업이 매년 반복된다.

03. ——— 사업비로 한정된 예산의 운영

이러한 공모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사용 범위가 사업비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 실제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명시돼 있어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⁸ 법과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⁸ 서울특별시의회(2017),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04. ——— 한계가 가중된 리빙랩 공모사업

리빙랩 공모사업은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리빙랩 방식’이라는 꼬리표를 하나 더 달고 나타났다.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여러 영역과의 협업하고, 무엇보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한다. 그렇다고 서류절차나 회계처리가 간소화되거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니다. 다만,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시도와 노력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 주체에게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는 데 의미 있다.

05. ——— 6개월 이상 할애하기 어려운 짧은 사업 기간

리빙랩은 말 그대로 ‘실험’의 개념을 담고 있다. 이론이나 가설이 실제로 가능한지 해보는 일이다.⁹ 절실한 필요를 가진 시민이 다양한 영역의 사람과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희망제작소, 2018). 그래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할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기 어렵다. 리빙랩의 성격으로 볼 때 기간을 정해두고 마감하는 공모사업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에서 봤듯이 경상남도의 경우 올해 초 서둘러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제 리빙랩 실행 기간은 6개월 이상을 배치하기 어려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계획으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일정이었으나, 실험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간을 협의해 11월 중순에 마감했다.¹⁰ 국민해결2018 사업은 공고부터가 6월에 시작되는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중요한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배치하기 어렵다 보니 가설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

⁹ 표준국어대사전

¹⁰ 경상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리빙랩 사업의 자문 역할로 참여하고 있음.

11. '국민해결2018' 프로젝트 진행 시 상상테이블을 통해 접수된 의제 분류 참고. '사회혁신플랫폼'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6개 지역 의제 목록 참고.

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해당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매해지면서 새로운 해결방법보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결과물이 나오긴 한다. 문제를 정의하면서 설정한 목표 또는 가설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를 보완할 지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엔 이미 공모 기간이 임박해 있다. 리빙랩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06. — 기존 공모사업과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의제선정과 해결방식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지역사회문제는 유사한 특징이 있다. 주차 문제, 골목쓰레기, 층간소음, 소외계층 돌봄 문제 등 지역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A 마을의 주차문제와 B 마을의 주차문제는 원인도 다르고 갈등 양상도 다르다. 따라서 해결방법도 달라야 한다.¹¹ 사업의 중복지원 문제가 지적되지만,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방식이 기존의 사업에서 제시된 대안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우려된다. 의제의 참신성이 아쉽더라도 문제 해결 방식은 결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IV.

'리빙랩' 공모사업의 개선방안¹²

01. — 연속성 확보, 중장기 과제로 설정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험'이라는 방법에 정부 예산의 투입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현 사회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얹혀있거나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미세먼지 문제처럼 개인의 관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시적 문제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실행과정을 추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이 이뤄져야만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시행착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도전하는 시민은 위축되고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고,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과정을 설계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모 기간은 2개년에 걸쳐 '기획-실행-평가' 과정으로 이뤄지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1차연도에는 학습과 문제 정의를 위한 숙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실습 위주로 계획한다. 2차연도에는 1차연도에 숙성된 기획이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본격적인 실험(7개월)을 벌이고, 이후 결과물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환류 과정(3개월)을 실행해본다.

12. '국민해결2018' 결과보고서 중 필자가 작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재작성.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간지원조직 등의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공모사업의 과감한 통합·조정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

02. ————— 협력사업간 연계, 공모사업의 통합 조정

리빙랩은 개별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할 수도, 기존 사업을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행정 부서 간 또는 중간지원조직(마을,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등)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유사한 공모사업은 통합·조정해 규모와 지원의 질을 높이는 기획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체별로 유사한 공모사업을 각각 진행할 게 아니라, 기획·훈련 담당(A 중간지원기관 또는 부서), 실행지원 담당(B 중간지원기관 또는 부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유연한 성과평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도 흐름을 같이 한다.¹³ 리빙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규칙 제·개정 등 통합운영을 위한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간지원조직 등의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공모사업의 과감한 통합·조정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

¹³. 정창기(2019),
 왜 사회적가치인가,
 희망이슈 46호

03. ————— 다양한 주체그룹의 성장 과정으로 설계

리빙랩 공모사업의 추진 주체는 '문제의식을 지닌 시민(주민)'이다. 이들은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참여하며,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문제해결의 주체로 전 과정에 참여한다.

하지만 리빙랩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과 훈련이 충분하지 않고, 문제 당사자인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 접근성이 더욱 떨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전문연구자, 현장에서 사회문제를 체감하는 활동가,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과 삶을 걱정하는 시민연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발견하는 주체들도 '당사자' 그룹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04. ————— 사회혁신 주체 발굴 및 사전 학습 설계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인 시민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체 그룹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훈련된 사회혁신가가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과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리빙랩을 비롯한 사회혁신의 다양한 방법론을 체험하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천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야 한다.

05. ————— 상시적 지원체계

모든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전문가 풀(pool) 구축을 통해 기존 사회혁신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 시행착오에 대한 과정별 대안 마련이 상시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 부서나 기관에서 리빙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실행 주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의제가 중복되는 경우 등 정보나 경험의 부족으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칸막이 행정의 문제를 보완하고, 공기업·대학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리빙랩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해서 워킹그룹을 조직하고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 워킹그룹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대안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06. 행정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

리빙랩은 결과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정의 점검과 토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기존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심사·선정한 후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방식이다. 리빙랩의 특성상 기존의 공모사업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때 소위 '실패'를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리빙랩의 경우 행정의 적극적인 결함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리빙랩의 특성상 제도나 규칙의 범위에서 또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 시도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은 행정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해도 '당사자로서의 시민'을 간접참여자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경계할 지점이다.

07. 오픈웍스(Open-works)¹⁴ 방식의 한국형 모델 시도

행정이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정책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정책 기획 과정에서부터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진행 과정에도 시민의 역할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14. 오픈웍스
(Open-works)는 영국 런던 램베스 west norwood 지역에서 '참여 문화'를 기반을 둔 생활 시범 시스템을 운영한 사례이다. 오픈웍스 프로젝트는 수백 명의 사람이 사회와 커뮤니티의 변화(reshape)를 시도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는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데서 착안했다. 램베스구에 비어있는 상점 공간을 활용해 'Works Shop'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램베스구 소속 공무원이 시민들을 기다리며 상담을 제공한다. 지역사회에 도움 되는 어떤 아이디어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시민들은 이 공간에서 공무원과 상담하고 1차 프로젝트를 시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
오픈웍스의 개념

출처:
국민해결2018
결과보고서

정책수행 과정에서는 리빙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 실행하는 프로세스도 포함해야 한다. 오픈웍스(Open-works)는 물리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가동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기존에 불편한 문제들은 민원 방식으로 제기하고 해결은 행정과 공무원에게 맡겨뒀다면,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과 시민이 공론화 테이블에서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협업플랫폼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만드는 정책의 실험이 이뤄지고, 생활 속 불편한 문제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 실험과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갑을 관계’로 불리는 수직적 협력관계가 아닌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수평적 협력관계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모를 진행하기 전에 관심 있는 주체가 ‘리빙랩’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갖추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을 설계해야 한다.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숙의와 수정·보완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촉진자와 연결해야 한다.

전문 촉진자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제안자 간 검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리빙랩이 진행되는 과정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역할은 공모사업을 발주한 행정기관이 직접 담당할지, 중간지원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지 검토해야 한다. 발주처와 수행자(팀)의 협력과 논의에서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소위 ‘갑을 관계’로 불리는 수직적 협력관계가 아닌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

하는 수평적 협력관계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개선사항이 보완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발성과 주도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공모사업이 기획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옥세진 외 2인(2018), 『소셜리빙랩 매뉴얼북』, 희망제작소 & 행정안전부.	지자체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정창기(2019), 왜 '사회적가치'인가?, 희망이슈 46호, 희망제작소.
논문 박영선(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NGO 연구 제10권 제1호, 139~169.	기타 경상남도(2019), 「2019년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 공고문. K-water 리빙랩 '수상한 시민실험' 추진계획.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 '국민해결2018'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2017),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연구보고서 권향원 외 2인(2018),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모델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김정옥, 진성만(2018), 인천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 조사, 인천연구원. 성지은 외 6명(2017),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현찬, 구아영(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염철호, 김은희(2014), 건축·도시 관련 공모형 지자체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광석(2016),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형	관련기사 유호근, 서울시 마을공동체 7년, 무엇을 이뤘나?, 프레시안, 2018.05.25.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 후원회원 신청

02-6395-1415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는

-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 입니다.
-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www.makehope.org
- facebook@hopeinstitute
- 02-3210-0909

THE HOPE INSTITUTE ISSUE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No. 48
2019. 11. 28.